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7. 15.(수) 15시

55개국 동포 청년 285명, 모국에서 한인의 뿌리 만난다

- 재외동포청,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’ 개최식 개최
- 6박 7일간 역사·문화·평화 체험하고 세계 각국 동포 청년과 교류

-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(만18-25세)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’에 참여한다.
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개최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.
-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·문화·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.
 -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,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.
-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,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‘체험·참여형 프로그램’을 확대했다.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.
 - 개최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관, 고성 통일전망대,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.
 -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,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등에도 참여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 발전상을 살펴본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개회사에서 “여러분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

속에서 성장했지만 ‘대한민국’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있다”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.

- 이어 “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바란다”며 “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문화를 이어가는 가교로 성장해달라”고 말했다.

□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’는 지난 6월 22일 시작해 오는 8월 17일까지 청소년 연수 6회, 청년 연수 3회 등 모두 9차례 열린다. 전 세계 차세대동포 약 2,600명이 참가한다.

붙임 2026 차세대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 개회식 사진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	책임자	과 장 김채영 (032-585-3213)
		담당자	서기관 이현준 (032-585-3217)

